

# 미국산 사슴고기 수입 '진위' 논란

## 2004년 8,326kg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양록산물 수입 금지된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사슴고기 8,326kg(14,024달러 어치)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본회가 진위과악에 나섰다.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수입된 사슴고기 총량은 40,938kg(121,274달러 어치)으로, 이 중 뉴질랜드산 29,783kg, 호주산 2,829kg과 함

께 미국산 사슴고기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산 사슴고기가 수입된 것은 98년 이후 작년 5월 한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으나, 검역실적이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수과원은 또한 회신에서 북미 지역 산 사슴육·녹용 등 양록산물은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농림부고시 제 2005-6호)

에 의거, 수입금지조치가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 통계담당관실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최초 자료제공 기관인 관세청의 단순 오기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 자료가 농림부 공식 통계인 점을 감안, 철저한 확인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에 따라 본회는 관세청에 사실여부 확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연도별 사슴육 수입실적

년도	총량(kg)	금액(\$)
1998	9,507	70,497
1999	28,472	112,255
2000	34,130	96,856
2001	36,684	72,620
2002	31,901	61,584
2003	1,393	37,849
2004	40,938	121,274

\*수입국 : 뉴질랜드, 미국, 호주

## 중국, 한국 녹용수입제도 '시비'

“한국산 녹용만 축산물로 분류한 것 부당하다”

뉴질랜드, 러시아에 이어 많은 녹용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대 한국 무역투자환경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녹용수입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자국산 녹용은 축산물로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녹용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WTO에서 허용하는 내국민 보호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 녹용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과거 제기했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녹용절편

수입허용 이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의 녹용절편 제조를 염두에 둔 뉴질랜드 측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국산녹용의 경우 축산물 형태로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되지만, 수입녹용의 경우 의약품 용도로 수입되는 데다 각종 질

병유입 우려는 물론 가짜녹용 혼입 등 우려가 존재하므로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녹용절편은 지난해 4월부터 수입허용 됐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에 고 단계에서 본회가 녹용 정밀 검사 면제 등 일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보류돼 녹용절편 수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으로 둔갑되는 사례를 비롯해 녹용 수입회사, 과거 불법수입 녹용 유통 관련자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까지 조사해 갔다.

관세청 서울세관 N계장은 “밀수 등 외산 녹용의 불법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밀수진담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밀수 등

외산 녹용을 이용한 불법 행위 의심자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수 적발 건수에 있어 녹용은 해마다 금액면에서 1, 2위를 다투만큼 만연돼 있으며 이중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 관세청, 불법녹용 단속 강화

올들어 중국에서 150억원대의 녹용 밀수가 적발되는 등 외산 녹용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관세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올초부터 관세청은 본회를 통

해 녹용에 대한 수출입 동향부터 한국의 녹용 시장 규모, 거래가격, 유통 경로 등 녹용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 갔다. 최근 들어서는 밀수 및 정식 경로를 통해 수입된 녹용이 국산

## 軍 훈련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 서부지법 민사4단독 이화용 판사는 군부대의 훈련소음 때문에 사슴 사육에 피해를 입었다며 권씨(6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권씨에게 1천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군부대가 훈련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사

실을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4월 초순 육군모부대가 경기 김포시 대곶면 일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에 놀라 7년생 수사슴 1마리가 사육장 울타리를 부수고 달아났고 나머지 사슴들의 녹용 생산량도 감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제는 안개잡니다.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 사슴 및 동물 마취기구

녹산상사는?

- 20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 국내 유일의 깨지지않는 특수 주사기 신개발!  
주사기 다양화(1.5, 2, 3, 3.5, 6cc)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반 영구적인 특수 알미늄 소재의 불루건!  
불루건의 연결부위를 나사식에서 사선결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불루건은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명중률이 높습니다.

신제품 6cc주사기 개발로 질병치료 및 마취시 용량부족 완전해결!



**공기 마취총 공급!**



- 용량에 따른 주사기 장착,
- 마취약 용량부족 완전 해소
- 조준법은 불루건과 동일
- 단 한번 명중이면 OK, 스트레스 최소화
- 탈출사슴 포획 용이

녹산상사는 과대광고를 하지않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지 주문 하시면 즉시보내드립니다.**

녹산상사

전국무료전화 080-567-2380

핸드폰 011-711-2380

● 농 협 : 482-12-003352

● 우체국 : 01-2914-02-002906 (유명순)